

행동하는 믿음 15.

변화는 'Next'가 아니라 'New'가 되는 것입니다.

1. 사람?

생령이 된 존재이다.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신 생기가 숨결로 들어간 존재라는 것이다. (창조자의 숨결)

[창세기 2:7]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고 말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생령의 존재'이다. 존재는 모양이 아니라 '상태'에 관한 것이다. 모양으로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다. (진짜 열매, 모조품 열매) 그 열매가 어떤 상태인가에 대한 것이다. 상태가 중요한 이유는 '진짜'에 대한 검증이기 때문에 그렇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 말씀하셨다. 가짜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 말라기에 기록된 거짓 예배에 대한 책망

[말라기 1:7, 10]

7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10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말라기에 기록된 제사장들의 거짓 예배를 보며, 하나님은 예배가 모양과 형태가 아니라 말씀하신다. 이런 예배를 드리려면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 걸으라 말씀하신다. 결국 '진짜'에 대한 싸움이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은 명확히 한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이다. 진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것이다.

2. 죄

껍데기(육)만 남은 상태이다. 결과는 죽음이다.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진짜 회복은 환경의 회복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환경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다. 아담이 회복되어야 에덴의 회복이 있는 것이다. 사람의 회복은 '생령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사람의 옛 자아, 죄의 자아를 죽음으로 처리하셨다. 그리고 구원 받으셨다. 새 길을 여셨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옛 자아를 개조하고 고쳐 쓰신 것이 아니다. 완전히 폐기하신 것이다.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십자가로 인봉하셨다. 구원받고, 회복 되었다는 것은 '새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새로움-NEW'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 'New'의 개념

성경은 'Next'의 개념이 없다. 개발되고 발전되는 개념이 아니다. 다른 존재가 되는 것,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이다. '사람'은 발전의 존재가 아니다. 이미 완성된 존재이다. '다음 단계로 발전되고 개선된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7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에베소서 2:10]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0 For we are God'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to do good works, which God prepared in advance for us to do.

* '만드신' (workmanship) 포이에마 : 피조물, 창조물, 작품(최고의 작품)을 말한다.

'사람'은 진화되어 다음 단계로 '발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3. New - 창조

사람은 새로운 존재이다. 창조의 개념이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다는 뜻이다. 저절로 진화하고 발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혁신의 존재가 아니다. 창조로 지음 받은 '새로운 존재'가 사람이라는 의미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바로 독창성(originality) 때문이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창조라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라는 사람의 기원에 대한 성경의 선포는 중요하다.

사람은 '독창성'의 결정판이다. 독창성은 유일함을 말한다. 카피하거나 모방하지 않는 것이다.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작품의 스킬이 아니다. 그 작품이 진짜인가 아닌가는 작가의 숨결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것이다. 작가의 숨결이 있는 작품은, 그 작품 하나이다. 모양은 똑같을 수 있으나, 작가의 숨결이 들어간 것은 오직 한 작품이다. 사람은 바로 그런 존재이다.

*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 - 사탄의 목표

사탄의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다.(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이다. 자신이 유일한 신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그러나 사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 안에 있는 창조물의 독창성을 파괴한다.(비교와 차별 : 돈, 유행, 흐름, 문화) 세상의 흐름을 주도한다. 유행과 주류라는 흐름을 만들어낸다. 주류와 유행에 편승되지 않으면 불안해진다. 뒤쳐진 존재가 된다. 뒤쳐진 존재란 사회에 쓸모없는 '낙인'이 찍히는 것과 같다. 'New'를 대적하여 사탄이 만든 'Next'가 이 시대를 주도한다. 그런데 왜 누구를 따라가려고 하고, 누구를 닮으려고 하는가?

4. 독창성 - 부르심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 부르심이 있다. '구원 받았다는 것'은 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1:9]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9 who has saved us and called us to a holy life--not because of anything we have done but because of his own purpose and grace. This grace was given us in Christ Jesus before the beginning of time,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거룩한 소명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다. 소명과 부르심이 없기에 방향한다. 의미를 찾지 못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다. 각자에게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나에게만 주어진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비교하지 말라고 하신다.

5. 창조의 사역 - 숨결을 불어넣는 일

'예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창조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창조는 '환경'과 상황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주도하는 것이다. '광야'에 새 길을 만드는 것이다.

(1) 마른 뼈

바로 그 사역이 '숨결'을 불어 넣는 것이다. 생기를 불어 넣는 것이다. 생기가 들어가면 '마른 뼈'가 군대가 된다. 육은 마른 뼈로 상황과 환경을 보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눈은 '에스겔'에게 다른 것을 보게 했다. 그들은 마른 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였다. 이스라엘이 지금 마른 뼈처럼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도 마른 뼈와 같은 상황, 광야와 같은 시간을 통과할 때가 있다. 그런 환경과 시간을 통과한다고 해도 우리의 존재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른 뼈와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정체성은 변할 수 없다. 마른 뼈가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 넣어졌기 때문이다. 에스겔의 사역은 바로 창조의 사역이다.

(2) 오순절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생기가 다시 불어넣어진 것이다. 성령이 오시니 베드로가 창조의 사역을 한다. 육의 한계를 넘어서 창조의 사역이 일어난다. 돌파가 일어난다.

6. 믿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주시겠다는 사도행전 1:8을 믿는 것이다. 오순절이 우리에게 다시 필요하다.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성령을 받게 되면 다른 존재가 된다. 발전의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다.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자.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는 창조의 사역이 교회 안에, 내 안에, 가정 안에 일어나기를 기도하자.